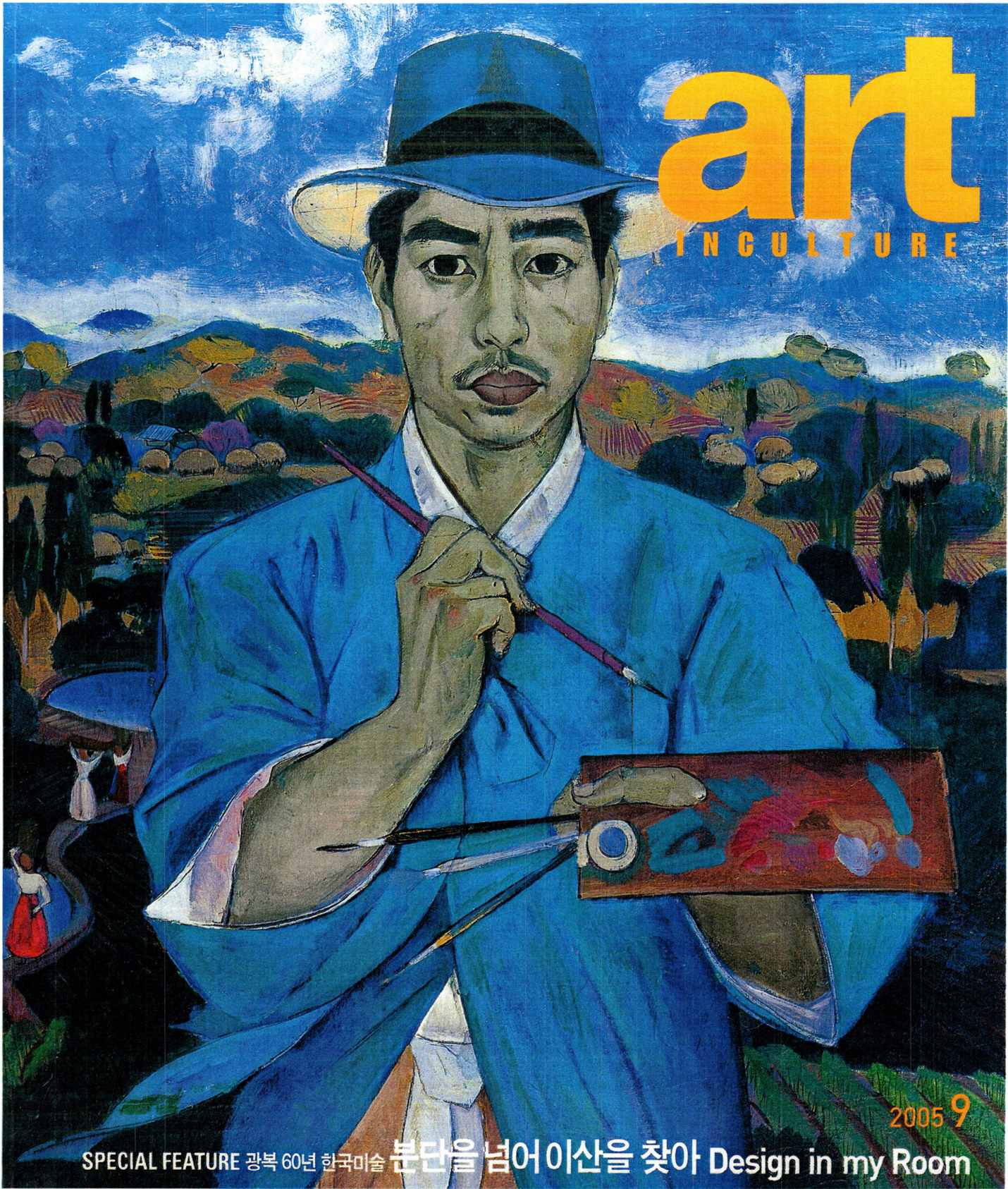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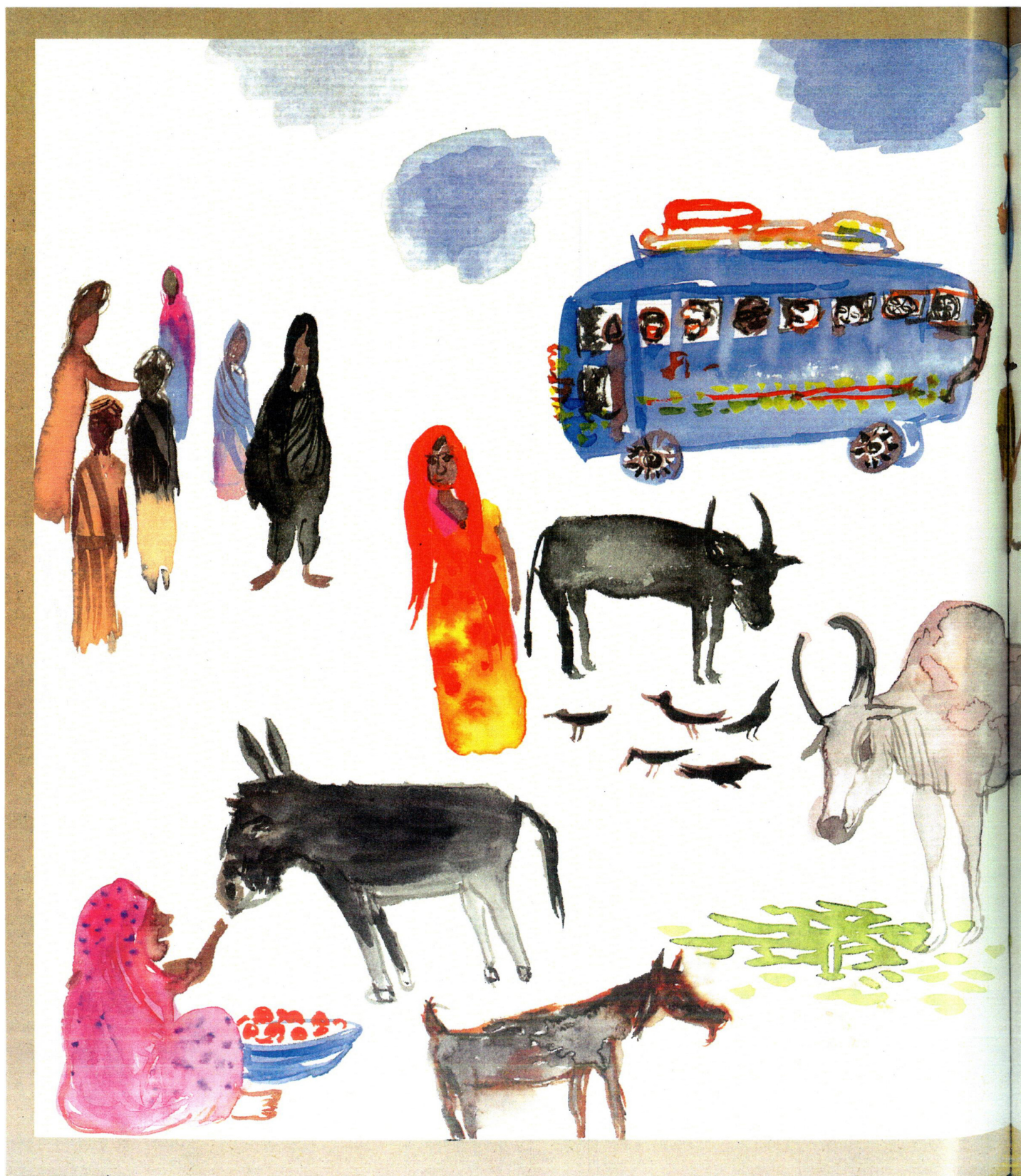


art

INCULTURE

2005 9

SPECIAL FEATURE 광복 60년 한국미술 **분단을 넘어 이산을 찾아** Design in my Room





안창홍은 1953년 밀양에서 출생했다. 현재까지 22번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1989년 카뉴국 제회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2000년 제10회 봉생문화상, 2001년제 1회 부일미술대상 등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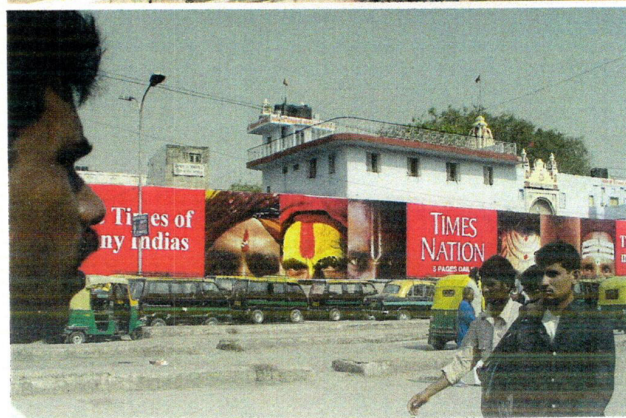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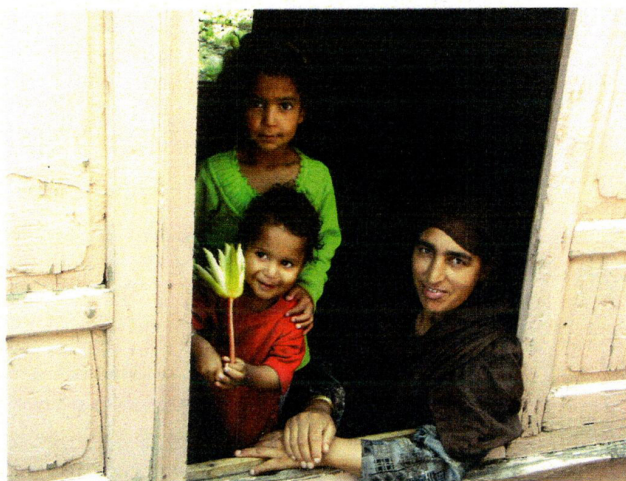
ARTIST ESSAY

안창홍의 인도 여행기

고대 문명의 중심지, 불교의 발생지, 10억 인구의 나라. 인도를 설명하는 다양한 수사들이 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인도는 삶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사색의 장소로 다가온다. 지난 7월, 화가 안창홍은 한달 여 남짓 인도여행을 다녀왔다. 후덥지근한 공기와 시끄러운 경적 소리에 힘이 들지만, 인도는 매번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되묻고 그 답을 준다. 델리를 시작으로 다람살라, 레, 머날라를 여행하고 돌아온 그의 족적을 따라가 보자.

몇 달째 잠잠하던 여행 병이 또 도졌다. 모처럼 그림판 돈으로 집에 밀린 생활비 주고 주머니 속에 따로 꼬불쳐 둔 돈 몇 푼 때문에 간이 병해진 것이다. 일단 마음먹으면 저지르지 않고선 못 배기는 성격인지라 손에 잡히지 않는 붓을 팽개치고 며칠을 이 궁리 저 궁리 하다가 결국 인도행을 결심하였다. 개인전 준비는 아예 뒷전으로 밀려나버린 것이다.

여행 코스 때문에 지도책을 펴놓고 인도의 너른 땅덩이 구석구석을 훑어보는 사이에 마음은 벌써 인도에 가 있고 가슴은 설레기 시작한다. 거리 가득한 카레 냄새, 지뢰밭처럼 흩어진 똥들, 그 길 위로 차가 지나칠 때마다 먼지에 섞여 날리는 똥가루, 매연, 까마귀떼, 조는 듯 서있는 소들, 이따금 눈을 현란하게 하는 아름다운 공작새의 비상, 엘로라 나무 아래서 잔피로 사람을 괴롭히는 원숭이들, 모래알 같이 많은 사람들, 그들의 남루하고 고단한 삶, 계곡을 아슬아슬 돌아가며 험악대던 늙은 버스, 숨이 막힐 듯 가득한 습기와 더위, 파리떼, 파리떼보다 더 질기게 달라붙는 거지들의 때문은 손, 사람 열받게 하는 잔챙이 사기꾼들. 아! 난 그래도 인도가 좋다! 카자흐스탄 타르사막의 핏빛 노을과 낙타의 울음소리가 그림다. 웅대하면서도 정교한 옛 성들이 그림다. 자이살메르의 푸른 도시가 그림다. 집시들의 깊고 우울한 눈빛, 그들의 연주와 춤이 보고프다. 인도는 늘 나를 곤혹의 늪 속에서 삶의 의미를



되씌어 보도록 하였고 나를 막다른 벼랑 끝으로 몰아부치기도 하였다.

대륙 전체가 움직이는 회화인 듯한 인도는 나에겐 에너지 재충전을 위한 장소이기도 하다. 생활 속에 녹아 스며들어서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그들만의 독특한 색깔들은 도발적이면서도 너무나 자연스럽다. 현란하고 주술적인 색들의 향연 속을 헤매다 보면 느슨해져 있던 감각이 어느새 팽팽해져 있다. 그 외에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이 많은 새로운 경험들, 비천함과 고귀함이 함께 하는 그곳, 영감과 혼돈의 안개 속을 다시 헤매고 싶은 것이다. 그곳에만 존재하는 멈춰진 시간, 그 시간 속에만 존재하는 삶의 또다른 의미를 다시 느껴 보고 싶은 것이다. 주섬주섬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든 손을 놓고 문득 문득 그곳의 풍경 속으로 빠져든다.

이제 떠나는 일만 남아 있고 가능하면 빨리 그 곳으로 날아가고야 말 것이다. 여행코스를 결정하고 여행사를 통해 비행기를 알아보고 같이 동행할 술친구를 물색하며 며칠 바쁜 시간을 보냈다. 팀이 정해지고 출국 날짜와 시간이 정해지고 가방 속에 상비약을 챙겨 넣는 것으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떠날 일만 남은 것이다.

서쪽으로 7월 8일. 공항 대합실로 들어서자 실내는 떠나는 사람들의 들뜬 열기로 가득하다. 나도 약간 상기된 기분으로 비행기 시간을 기다린다. 2시 30분 이륙, 비행기는 지는 해를 따라 서쪽으로 서쪽으로 하염없이 날아갔다. 나는 떠나는 자의 감회에 젖어 타원형의 창을 통해 어둠과 노을이 만나는 지점을 바라본다. 비행기가 아래로 기우는 듯하여 밖을 내려다보니 눈에 익은 밤 풍경이 펼쳐져 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델리의 밤 풍경은, 화려한 네온 빛에 익숙한 우리들의 눈엔 마치 고대 도시를 보는 듯 신비롭고 아름답다.

느릿느릿한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아 공항대합실을 빠져 나오자 허덕거리는 공기와 소음 속에서 정신 없이 혼잡한 풍경이 낯설지 않게 다가왔다. 우리는 달라붙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이리저리 헤매다 어렵사리 택시를 잡아타고 공항을 빠져 나왔다. 여기저기서 정신 없이 놀러대는 경적 소리, 지린내와 혼잡함에 아랑곳없이 조는 듯 서 있는 소들을 차창으로 스치며 비로소 인도에 온 것을 실감한다. 인도 소들은 잠도 없나? 이 야심찬 시간에 찾길 명상이라니? 꺾꺾! 우리는 여행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타운으로 가서 여장을 풀고 여행지에서의 첫 밤을 맞이하였다.

뜨거운 플랫홈 7월 9일. 무거운 가방을 짐꾼에게 맡기고 플랫홈 계단을 오른다. 더위에 지쳐서 빈손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이 드는데 짐꾼은 25kg 남짓한 나의 가방을 머리에 이고 양쪽 팔에 배낭 2개를 더 들고서 새다리처럼 기늘고 까만 종아리로 잘도 오르내린다. 그인들 왜 힘이 들지 않겠는가! 짐의 무게 보다 피해 갈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더 힘에 겨울 테니 견뎌내는 것 이리라. 그러니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짐을 운반하게 하고 수고비를 주는 것이 최선인데 가난한 다른 여행자들을 위해서 수고비를 너무 후하게 줄 수도 없다. 여행을 하다 보면 다른 여행자들을 위한 배려 때문에 행동에 제약을 받을 때가 많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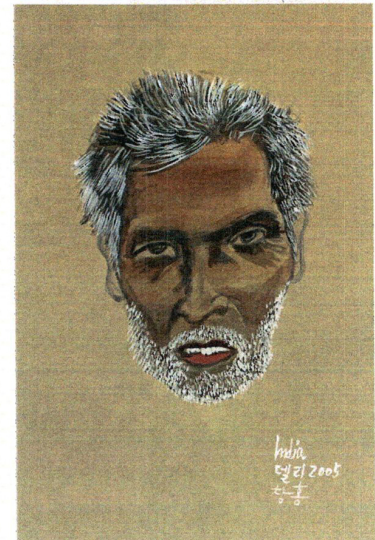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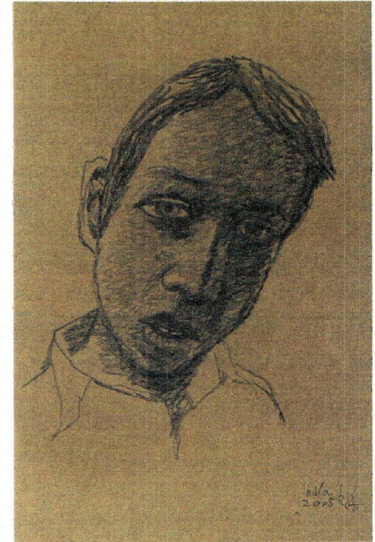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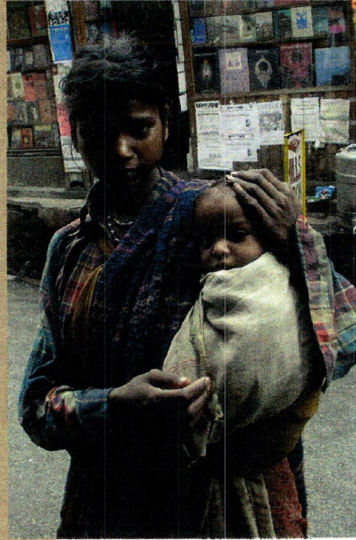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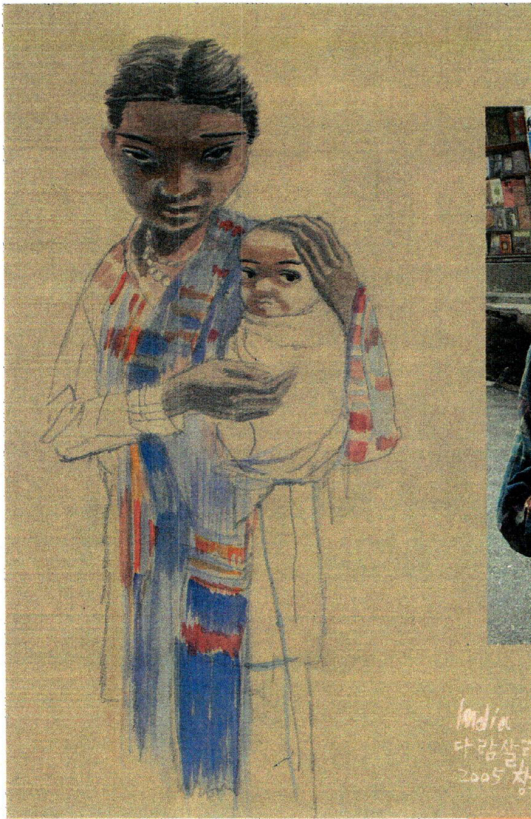
위 · 〈인도 인상 1〉 종이에 과슈 2005 식물문양과 어우러진 인도의 인상 | 왼쪽 페이지 위 · 2005 인도에서 만난 가족 | 아래 · 뉴델리 역사 앞에 있는 대형 광고판. 붉고 강렬한 비탕색이 인상적이다.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빼곡한 플랫폼에는 각양 각색의 사람들이 표정 없는 눈빛으로 제각각 열차를 기다린다. 나도 지린내 섞인 탁한 공기 속에서 더위에 거의 질식할 것 같이 헉헉대며 열차를 기다린다. 45℃를 웃도는 살인적 더위에 부채를 열심히 흔들어 봐도 소용이 없다. 그런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부채질을 해대는 사람들은 우리 일행뿐이다. 신기한 것은 서있는 앉아있는 처음 정한 자세 그대로 큰 움직임이 없이 몇 시간을 지나 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플랫폼을 가득 매운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무성영화의 장면을 보는 것 같다.

열차는 3시간의 연착 후 플랫폼으로 들어왔고 우리는 황급히 열차를 올라탔다. 에어컨이 달린 열차라 객차 안은 제법 서늘하였다. 양쪽 벽엔 3단으로 침대가 매어 달려 있었는데 두터운 담요 한 장과 흰 침대보 두 장이 각각 지급되었다. 피곤에 지친 일행들은 잠이 들고 홀로 어두운 창 밖을 바라보며 공항 면세점에서 사온 위스키를 마신다.

다람살리를 향하여 7월10일. 어렴풋이 눈을 떠니 차창 밖이 밝아 있다. 내가 잠시 잠든 사이 밤을 새워 달려온 열차는 나를 낮선 풍경 속으로 데려다 놓았다. 델리에서부터 9시간 남짓을 달려온 열차가 작은 시골역(치키벵크)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차를 바꿔 타기 위한 중간 경유지라 설 시간도 없이 역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지프차를 대절해 타곤 꼬불꼬불한 마을길을 빠져 나와 다람살라로 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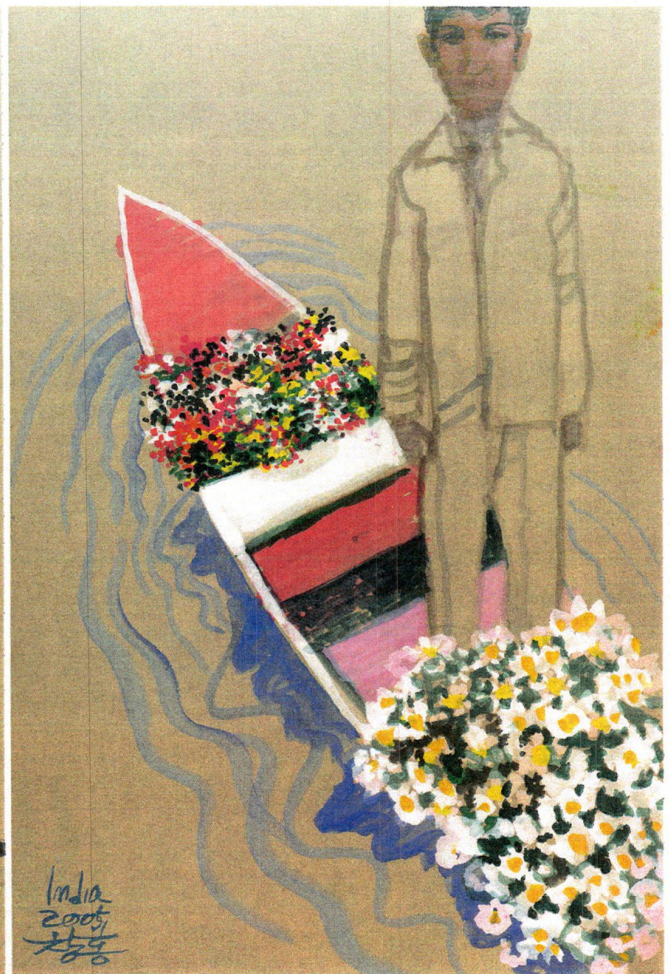
하늘을 가리운 울창한 가로수들과 간혹 마주치는 물소떼들, 목가적 시골 풍경들을 차창 밖으로 스치며 우리를 태운 차는 산을 넘고 또 넘었다. 다람살라는 해발 1500m의 고지에 있고 그 속에 티벳 망명정부가 있다. 달라이라마가 있는 곳. 좁게 이어진 위태로운 벙랑길을 따라 이슬이슬하게 협곡을 오르니 상권이 모여 있는 메클로우드 타운 중앙로쯤 되는 곳에 도착하였다. 거리는 티벳 망명지답게 티벳 사람들과 여행자들로 가득 붐볐다. 치키벵크를 떠난지 4시간 남짓의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게스트 하우스에 짐을 풀고 샤워



위부터 시계방향 · <다람살라에서 I> 종이에 과슈 2005 다람살라에서 만난 거지 소녀, 그녀에게 아기는 살림말천이다. 여행객들의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I <스리나가르에서 I> 종이에 연필 2005 I <델리에서> 델리에서 만난 오토바이 리카. 그는 돌아갈 가정이 있어 행복하다고 한다. I <다람살라에서 II> 종이에 과슈 2005 가족 사료용인 듯한 풀더미를 짊어지고 가는 여인. 인도에서 하층민일 경우 힘든 일은 여인들이 도맡아 한다.



왼쪽 · 〈소와 나〉 종이에 과슈 2005 | 오른쪽 · 〈킹스네이크 호수에서〉 종이에 과슈 2005 선상호텔 투숙객을 상대로 꽃을 파는 꽃장수



를 하고 전망 좋은 발코니에 서서 눈 아래 펼쳐진 풍경을 바라본다.
가파른 비탈에 하늘 찌를 듯 울창한 숲들과 그 숲 속과 벼랑에 세워진 티벳
망명자들의 서러운 집들을 바라본다. 좁은 골목길을 걸어 보기도 하고 레스
토랑에서 티벳 음식을 먹어 보기도 하고 안개와 습기로 가득한 공기 속을 어
슬렁거리며 보기도 한다. 저녁엔 일행들과 무사한 여행을 자축하며 위스키와
맥주에 젖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킹스네이크 호수에서의 저녁 7월14일. 아침 5시30분 기상, 짐을 챙기고 6시
경 쏟아지는 빗속에서 잠무행 지프에 몸을 싣고 위험천만의 우중질주로 다
람살라 비탈진 벼랑길을 내려오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우거진 가로수 길을
우중질주하는 기분은 묘했다. 나는 위험한 드라이브가 좋다! 거친 물보라를
일으키며 흘러내리는 황토 빛 하천과 푸른 초목들의 조화 또한 기묘하였다.
그렇게 5시간을 달려 잠무 공항에 도착하였다.

분쟁지역이라 삼엄한 경비와 까다로운 짐 검사, 우여곡절 끝에 수속을 마

치고 나니 일행들의 표정은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처럼 피곤해 보였다. 비
행기에 앉아서야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맘을 식히며 비로소 안도한다. 늘 그
랬듯이 이놈의 나라는 원칙과 상식이 끝없이 헛갈리는 나라이니 어쩔 것인
가! 그래도 좋다고 찾아 왔으니 누굴 원망 할 수도 없는 노릇인 것이다.

이륙 후 30분, 포물선을 그리며 하강을 한다. 숙소로 가는 중간 중간 총탄
자국 난 벽들과 간혹 눈에 띄는 바리케이트가 그 동안 파키스탄과의 오랜 분
쟁을 침묵으로 대변해 주는 듯하였다. 이곳 사람들의 대다수가 무슬림이라
의상부터가 다른 지역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숙소는 선상호텔. 숙박용으로 만들어진 배를 말한다. 우리가 투숙할 선상
호텔은 넓은 호숫가에 수도 없이 정박해 있는 배들 중 하나였다. 짐을 풀고
찬물에 맘을 씻어내고 호텔 창으로 잔잔한 호수를 물들이는 저녁 노을 빛을
바라보며 여행자의 외로움을 달랜다. 병아리처럼 작은 새 한 마리가 헤엄을
치다간 자맥질을 하며 조그만 동그라미 속으로 사라졌다간 한참만에 다시
떠오르곤 한다. 넓은 호수 위에 점처럼 작은 새 한 마리라니! 나중에 물어 보

니 그 새 이름은 물병아리였다. 아득히 검은 산 능선에 희미하게 묻어 있던 황혼조각마저 사라지자 하늘엔 왕방울만한 별들이 쏟아질 듯 가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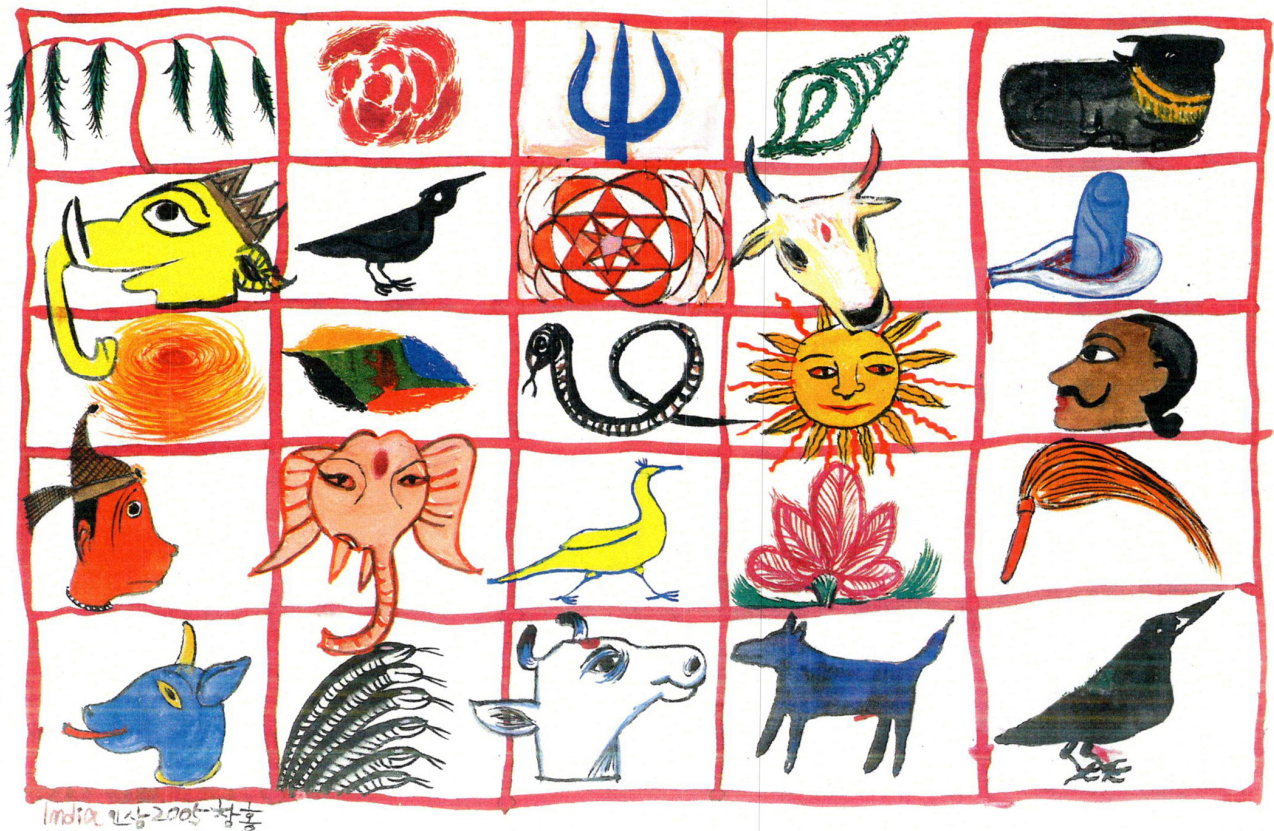
까르길 가는 길 7월 19일. 아침 8시 버스로 까르길로 출발, 오후 7시경 도착. 11시간을 달려오는 동안 차창밖에 펼쳐지는 대자연의 경이에 넋을 잃었다. 만년설과 낭떠러지와 이슬이슬한 찻길(폭 3m 남짓), 소용돌이치는 급류, 산간 마을들. 하늘빛을 닮은 맑은 눈들을 뒤로 하고 해거름에 까르길에 도착, 우리는 서둘러 구한 숙소에서 샤워를 하고 머리를 뉘었다.

아! 대자연의 경이 7월 20일. 캄캄한 새벽, 힌두 사원의 기도소리 혹은 경전 읽는 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온 동네에 퍼져간다. 바로 코앞에서 확성기를 켜 놓은 듯 너무 크게 들리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눈을 떠니 새벽 4시가 채 안되었다. 허겁지겁 잠잘 곳을 구하느라 호텔이 사원과 마주 하고 있는지를 미처 몰랐든 것이다. 나처럼 잠을 강탈당한 새들의 합창소리가 들리고, 닭 우는 소리가 들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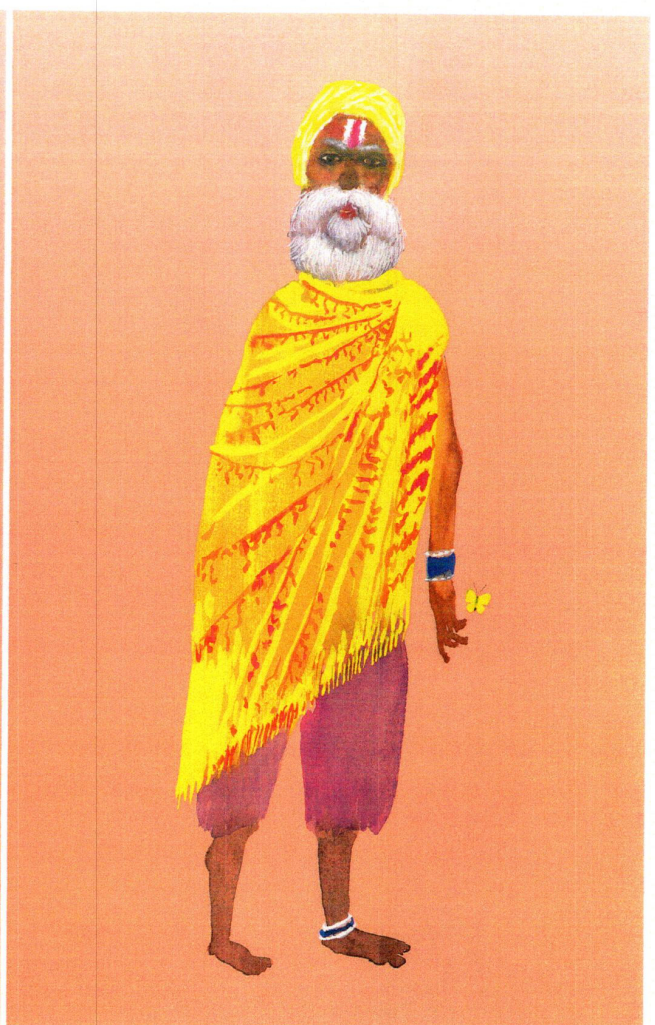
아침 6시, 일행을 태운 지프는 레로 향하였다. 이번 여행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지로, 인도 북쪽의 제일 끝 히말라야산맥의 끝자락에 서서, 만년설을 바라보며 쏟아지는 햇살 속에 몸을 담귀 보는 것이다. 레로 가는 길은 정말 대

단하였다. 수십 미터의 직벽 위에 겨우 2.5m 남짓의 이슬이슬한 벼랑길을 오르는 맛이란! 차가 서로 지나칠 때의 스릴은 뒷골이 땡길 정도였다. 내려다 보면 아찔한 낭떠러지, 그 아래 실오라기처럼 꼬불꼬불한 찻길과 성냥갑 반쪽보다 더 작아 보이는 차들. 소용돌이치며 흐르든 엄청난 급류의 강줄기가 실오라기처럼 가늘어 보이다니! 그 옆에서 병풍처럼 위로 솟아올라 차창 밖으로 머리를 내고 올려다보아야 봉우리가 보이는 거대한 산들. 두려움과 스릴과 탄성이 뒤섞인 약 8시간 동안을 지프에 몸을 의지한 채 달리고 기었다. 대자연의 경이와 인간의 왜소함이 몸서리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계곡을 벗어나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변하면서 평원이 펼쳐졌다. 비교적 곧게 뻗은 아스팔트길을 달리고 또 달려가자 히말라야의 산줄기를 병풍처럼 두른 인도의 제일 북쪽 도시, 사막 속의 오아시스 레가 나지막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찻길 위에 어슬렁거리는 소들을 피해 소박한 거리풍경을 차 창 밖으로 스치며 우리는 중심가로 차를 몰았다. 중심가라고 해 봐야 고작 우리 시골 마을 장터보다도 더 규모가 작은 곳이긴 했지만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여행 자들로 북적거렸다. 한가지 특징은 느릿느릿 마치 느린 활동 사진을 보는 듯, 나의 행동도 그랬다. 해발 3800m의 고지라 산소 부족으로 움직이는데 힘이 들기 때문이었다. 사막의 하늘은 청명하면서도 더 높았고, 햇살은 살인적으로 뜨거웠다.



India 2005-2006



왼쪽 · 〈다람살라에서III〉종이에 과슈 2005 인도의 승려! 오른쪽 · 〈알짜에서〉종이에 과슈 2005 노인! 왼쪽 페이지 · 〈인도인상III〉종이에 과슈 2005

레에서의 고산병 7월21일, 레의 첫 밤은 고산병 증세로 힘들었다. 악몽과 두통과 목마름에 뒤척이다 사나운 빗소리에 눈을 뜨니 휘영청 밝은 달빛이 방 안에 가득하다. 사막의 달빛이라 너무 맑고 깊어서 어젯밤에도 알 수 없는 그리움으로 애써 잠을 청했었는데 오늘도 이 이른 새벽부터 푸른 달빛이 나의 마음을 시리게 한다. 귀 기울여 보니 빗소리는 호텔 옆 개울물 흐르는 소리였다. 어둠이 완전히 걷히자 창문 너머 저 멀리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순백색으로 빛난다.

골목으로 나가 조그만 카페에서 토마토와 고추를 곁들인 오믈렛과 밀크커피를 주문해 놓고 기다린다. 이른 아침인데도 등 짙을 비추는 햇살은 따갑고 그늘진 앞쪽은 서늘하였다. 카페 옆으로 한가롭게 당나귀 무리들이 지나가자 그 뒤를 따라 소 몇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지나간다.

그리곤 실눈으로 눈부신 하늘을 바라본다. 머리 위엔 하늘 가득 포플러 나

무 잎들이 무궁해의 공기 속에서 햇살에 반짝인다. 강한 햇살 속에서 모든 사물들은 빛과 그늘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나의 눈을 현란하게 한다.

낮엔 호텔 방에서 다람살라에서의 기억이 더 회미해지기 전에 그려보려 스케치북을 펼쳤으나 그 기억을 표현하는데 실패하였다. 곰곰이 원인을 생각해 보니 내가 표현하려 했던 것은 그곳의 즐기치게 쏟아지는 빗줄기와 산악지대 특유의 습기였든 것이다. 그러니 종이에서 붓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물기가 말라 버리는, 이렇게 청명하고 건조한 기후와 시각적 감흥이 전혀 다른 이곳에서 과슈로 축축한 물기와 번짐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 될 법이나 한 소리겠는가? 결국 붓을 내팽개쳐 놓고 씩씩거리면서 침대에 벌렁 누워 버렸다.

해거름에야 밖으로 나갔다. 여행은 우리나라 젊은이들과 어둠 속에서 라마 꿈바가 있는 산의 꼭대기 쪽으로 강파른 능선을 기어서 꽤 높은 곳까지 올



최수경

위부터 시계방향 · <스리나가르에서 II> 종이에 과슈 2005 | <머날리에서> 종이에 과슈 2005 | <까르길에서> 종이에 과슈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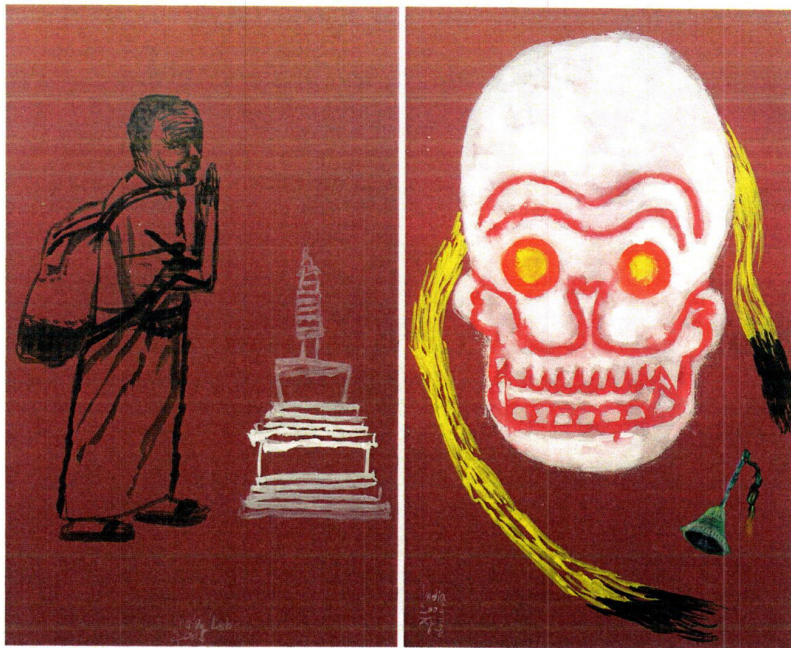
라갔다. 그리곤 넓게 트인 구름에 앉아서 동쪽의 검은 산 능선 뒤에서 구름을 뚫고 천천히 솟아오르는 쟁반 같이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았다. 깊고 푸른 하늘에 떠 있는 하얀 구름들과 둥근 달, 아름다웠다. 정말 아름다웠다. 그 달빛 아래 펼쳐진 레의 시가지 모습 또한 아름다웠다.

어둠 속에서 집들마다 창 밖으로 새어 나오는 백열등의 어린 불빛들의 아스라함, 종일을 피약별 아래 생존의 장에서 부지런을 떨다가 제각각 돌아가 고단한 몸을 누인 곳, 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아무리 찬란한들, 척박한 환경과 맞서 싸우며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이어 가는, 이곳 사람들의 숨결이 묻어나는 따뜻하고 어린 이 불빛들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을 것이다. 고단하고 힘에 겨운 삶일수록 그 삶은 더욱 아름답고 숭고하다. 이곳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강인함과 고독이 느껴진다. 햇빛에 그을린 구리빛 얼굴과 굵은 주름, 외로움이 묻어나는 눈빛들. 독특한 머리 모양과 의상에서도 이곳 기후와 맞서 싸우는 의지가 느껴진다. 인도에 속해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인도, 인도 대륙에 속한 작은 티벳, 라다크!

황홀한 인도 예술 7월 23일, 3시간 남짓을 달려 라마유루 꿈바에 도착했다. 8,9세기경 세워졌다는 라마유루 꿈바는 아름다웠다. 역겹의 시간을 건너어 낸 숭고함이 느껴졌다. 은은한 풍경소리와 거친 바람소리, 새소리, 나부끼는 깃발들, 모든 것을 익혀 버릴 듯 쏟아지는 불멸, 꿈바 마당의 그 불멸에서 서서 발아래 보이는 기기묘묘한 첩첩 산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다시 레 쪽으로 거슬러 올라오며 알짜에 도착, 지프에서 내려 마을 골목길을 향해 걸어갔다. 작고 잘 정돈되어 보이는 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돌아서 한 가롭게 풀을 뜯는 송아지(다람쥐 눈을 닮은)가 있는 공터를 지나자 흙과 목조로 짓고 흰 회를 칠한 나지막한 꿈바의 모습이 나타났다. 좁은 문안으로 들어서자 정원이 나왔다. 몇 걸음을 내딛자 어두컴컴한 경내가 보이는 입구가 나타났다. 신발을 입구에 벗어두고 경내로 들어서자 갑자기 다가선 어둠에 익숙해지기까지 잠시 서 있어야만 했다. 경내엔 3층 높이의 천장에서 희미하게 내려오는 자연 빛 외에는 일체의 인공 빛이 없었던 것이다.

입구를 지키는 라마승에게 불을 밝혀줄 수 없느냐고 부탁하자 경내 프레스코화의 마모를 막기 위하여 인공 라이트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라마승의 설명이었다. 사진 촬영도 금지되어 있었다. 좀 불편은 하였지만 속으론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어둠 속에서도 열심히 살펴보기에 여념 없는데 갑자기 시야가 환해졌다, 진지하게 감상에 열중해 있는 모습이 좋아 보였는지 입구를 지키고 섰던 라마승이 라이트를 켜 준 것이다. 순간, 갑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고색창연한 아름다움에 가슴이 벌렁거리기 시작했다. 좁은



왼쪽 · 〈影에서〉 종이에 과슈 2005 | 오른쪽 · 〈影에서〉 종이에 과슈 2005

경내 중앙에 3층 높이의 아름답게 채색된 목조 불상의 예술성에 탄성이 흘러 나왔다. 세밀화로 4면 벽 가득히 그려진 나한상들과 만다라들 또한 채색목각 상만큼 대단하였다. 아! 이렇게 큰 행운의 기회가 나에게 오다니!!! 이번 여행의 보람은 이 한 순간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

대단한 인류적 가치를 지닌 보물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상업적 이익을 창출해 내지 않는 조용하고 소박한 동네 또한 인상적이었다. 수백 년 동안을 변하지 않은 듯한 좁은 골목길. 이곳을 들린 수많은 여행자들은 분명, 황홀함과 경이로움에 젖어 경내를 살펴 본 뒤 조용한 골목길을 산책하며 알짜를 떠나기가 싫어 한동안을 망설였으리라.

위험한 드라이브 7월26일, 머날리는 다람살라와 같은 위도에 있고 거리는 10시간 정도 떨어져 있으나 같은 주에 속해 있다. 도착했을 때 거리의 첫 느낌도 다람살라와 비슷하였다. 다만 사람들의 모습만 편이하게 달랐다. 그곳이 작은 티벳이라면 이곳은 인도였다.

머날리 오는 길은 멀고도 험하였다. 새벽 2시에 출발하여 오후 7시 도착, 무려 17시간이나 소요된 대장정이었다. 그 길은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는 길이었다. 계곡과 깎아지른 듯한 벼랑 사이를 비집고 파놓은 좁고 거친 길을 아슬아슬하게 곡예 운전해 가는 맛이란! 우리는 제각각 정해진 지프의 좌석에 앉아 운모를 흔들며 달리고 또 달렸다. 나에게 주어진 좌석은 운전수 옆자리인데 한 사람이 더 끼여 앉는 바람에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다. (앞좌석은 풍경을 제대로 관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자리였다.) 몸 한번 제대로 뒤를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17시간이나 비포장 도로를 달렸던 것을 상상해 보

라! 나중엔 다리에 쥐가 나고 어깨가 결리고... 거기다 옆에 끼어 앉은 녀석의 잠에 끌어 떨어진 무거운 머리가 내 가슴을 파고드는데, 위험천만의 길이라 잠에 취한 녀석이 기아 스틱이라도 건드릴까 노심초사, 처음엔 창 밖의 비경엔 아예 눈조차 가질 않았다. 그 악조건 속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든 듯, 눈을 떴을 땐 새벽이었다. 2.3시간을 존 것이다. 불편했던 몸은 어느새 좁은 공간에 익숙해져 있었다. 놀라운 적응력! (그것은 아마 나의 삶의 방식과도 관계가 있었으리라. 오랜 여행 경험을 통해 터득한 상황 적응력과 어찌 해볼 도리가 없을 땐 불만 가지지 말기 따위의 여행 원칙.)

머날리로 진입하는 산맥(3800m)을 오를 때는 가히 입이 다물어 지지 않을 정도로 비경이었다. 멀리 구름 덮인 봉우리를 향해 차는 헉헉대며 기어올랐다. 어느새 저 멀리 보이는 구름 바로 아래까지 온 것이다. 일행을 태운 차는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듯 구름의 아랫배 속을 비집고 들어섰다. 작은 물방울들과 투명한 흰빛으로 가득한 구름 속을 경계를 울리며 위태롭게 달려갔다. 한동안을 앞으로 나아가자 일행을 태운 차는 구름 위로 솟아올랐다. 그리곤 헉헉대며 더 높은 봉우리를 향해 가는 듯이 달려갔다. 차가 봉우리의 능선을 넘어 산맥의 반대쪽으로 돌아서자 눈앞에 펼쳐지는 절경, 발 아래에서 겹겹이 피어오르는 구름들과 그 구름 사이로 언뜻언뜻 내려다보이는 찾길, 나무들, 첩첩 산봉우리들. 이 장관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까? 아예 표현 하지 말고 영원히 내 속에만 묻어두리라.

“자연은 더 넓고 더 높고 더 크다. 인간의 삶은 더 다양하고, 더 아름답고, 더 숭고하다.”

여행의 흔적을 뒤로 하고 7월 30일. 어젯밤 일찍 자리에

든 탓에 일찍 아침을 맞았다. 이놈의 잠시간은 해외에 나와서까지 변동이 없으니 하루가 알차긴 하나 몸은 피곤하다. 새벽 5시, 호텔 방문을 열고 테라스로 나가니 앞쪽에 보인 울창한 숲과 비탈진 산은 안개에 가려 보이질 않는다. 안개 속에서 일찍 일어난 새들의 지저귀이 들린다. 오후 3시엔 이곳 머날리를 떠나야 하니 아침나절엔 바닥에 널부러진 책들과 화구들을 챙기고 떠날 채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어제 밤보다 몸은 좋아진 듯, 더부룩한 속을 빼곤 견뎌볼 만 하다.

고산 지역이라 공기는 차고 아침 햇살이 따사롭다. 테라스에 앉아 마당 가득한 풀들 사이 여기 저기 피어 있는 클로버의 분홍 꽃잎을 바라본다. 산들바람에 하늘대는 연초록빛 풀들 위에 사과나무 그림자가 한가롭다. 사과나무엔 어린아이 주먹만한 사과들이 올망졸망 수도 없이 매어 달려 가지가 활처

럼 휘어져 있다. 이곳 사과나무는 우리나라 과수원 나무들처럼 인위적인 얇은땀이 나무가 아니다. 자연 그대로 자란 나무라 모양새가 좋다. 나무들 사이에서 청량한 새 소리가 들린다. 하늘대는 풀잎들과 듣기 좋은 새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들이 코러스가 되어 떠나야 할 자의 마음을 여유롭고 느긋하게 풀어준다. 가방을 챙기면서도 여행의 흔적들을 더듬어 보느라 좀처럼 진도가 나가질 않는다. 책 한 권을 들고서도 어디서 산 책이더라? 아! 그곳! 그 길, 그 거리. 아! 그곳 사람들. 이런 식으로 생각들이 끝도 없이 꼬리를 무니 짐 챙기기는 아예 뒷전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벌써 마음이 이러니 돌아가면 한동안은 이곳 생각 땀에 헤멜 것이다. 그런 들 어찌하랴! 내 마음 나도 어찌지 못하는 것을...

다시 동쪽으로 7월 31일. 어제 머날리에서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한 버스가 오늘 오전 11시경에 델리에 도착하다. 출근시간이라 중심가로 진입할수록 김밥 옆구리 터지듯 어디선가 쏟아져 나온 사람들로 거리는 순식간에 북새통을 이루었다. 사람들은 무표정하고 지친 얼굴로 건널목 표시도 없고 신호등도 없는 곳곳에서 길 건너기 위해 무리 지어 서있다. 무리들의 숫자가 적당히 모이면 차길로 내려서고 바뀌 달린 모든 것들은 또 우선 멈춤으로 기다려 준다. 그렇게 무질서 속에서도 나름으로의 질서가 있고 세상은 돌아간다. 교통 경찰들은 아예 눈에 띄지도 않는다. 한 운전사의 잘못으로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도 짜증내거나 소리치는 사람이 없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우리들 관념 속에 박혀있는 원칙이나 상식은 아예 통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생각들도 우리와 다르다.

회부연 공해 속에서도 해는 떠오르고 호텔의 때문은 커튼 사이로 뜨거운 햇살이 비취 든다. 창밖엔 낡은 지붕들이 숨막힐 듯이 빼곡하다. 언제 봐도 변함이 없는 이 남루한

어느 나라를 가든지 도시의 뒷골목은 가난한 자들도 빼곡하다. 다만 인도는 넘쳐날 뿐이다. 답답한 것은 변하지 않는 절망감이다. 여기저기 쏟아 내 놓은 오물더미 위에 혹은 똥 먼지 날리는 길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과 그 옆을 무표정하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병든 소와 아귀고 절뚝이는 개와 당나귀들, 그와 다름 바 없어 보이는 걸인들.

택시를 타고 도착한 델리 국제 공항 대합실은 떠나는 자들로 가득 붐볐다. 우리는 11시에 비행기가 이륙할 것이란 믿지 못할 희망으로 기다렸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뭄바이의 홍수 영향으로 비행기 일정들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시간은 흘렀고 새벽 3시경에야 비행기에 탑승할 수가 있었다. 탑승한 후에도 비행기가 이륙 할 때까지는 1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다. 나는 올 겨울의 남인도 여행계획을 머리 속으로 그리며 기다림의 지루한 시간을 인내하였다. ◉



(인도 인상IV) 종이에 과슈 2005